

대화와 예술

극단 고탄다단(五反田団)의 마에다 시로(前田司郎)

이흥이_오차노미즈 여자대학 박사과정, 희곡번역가



작가이자 연출가, 그리고 배우이기도 한 마에다 시로가 현재 유럽투어 중이다. 본인이 대표로 있는 극단 고탄다 단과 함께 <수테루 타비(Suteru Tabi)>를 공연하고 있는 것이다. 마에다 시로 작·연출, 또 출연까지 하는 이 작품의 여정은, 지난 10월 23일~24일 도쿄 고탄다에 위치한 소극장 '아틀리에 헬리콥터'에서 출발해, 10월 31일~11월 1일 스위스 루체른의 음악무용연극센터(Music Tanz Theatre Sudpol), 11월 3일~4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국립극장, 11월 8일~10일 프랑스 파리 가을축제(le Festival d'automne) 참가로 파리일본문화회관(Maison de la culture du Japon à Paris), 11월 14일 역시 파리의 퐁피두 센터로 이어졌다.





사실 이 작품의 해외공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9년 벨기에에서 이미 공연되었고, 이 때 프랑스인 연출가 겸 배우 장드 팡쥬(Jean de Pange)가 이 연극을 본 것을 계기로 마에다 시로와 장드 팡쥬, 이 두 사람의 인연이 깊어져 지난 2011년에 합작작품 <언더스탠더블?(Understandable?)>을 제작했다. <언더스탠더블?>은 올해 9월 26일~30일 도쿄의 아틀리에 헬리콥터에서 또 한 차례 공연되었고, <수테루 타비>의 유럽투어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11월 15일~20일 프랑스 메스(Metz)지방에 있는 페아트르 뒤 솔시(Théâtre du Saulcy), 그리고 11월 21일에는 메스 형무소 공연을 거쳐, 11월 26일~27일 룩셈부르크의 국립극장을 끝으로 막을 내린다. 이 작품은 단순히 두 사람 간의 합작이 아닌, 마에다 시로의 극단 고탄다단과 장드 팡쥬의 극단 아스트로프(ASTROV)의 공동제작 작품으로 두 극단에서 각각 세 명의 배우가 참가해 총 여섯 명이 일어, 영어, 프랑스어를 사용해 원초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작품이다. 말이 서로 통하지 않는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게 된다는 단순한 이야기를 기본 뼈대로, 이 작품은 커뮤니케이션이라

는 커다란 테마를 다루며 그 연장선으로 자막도 제공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다.

이젠 더 이상 두 개 이상의 언어가 쏟아지는 무대를 보는 일도, 유럽의 주요 연극제에서 아시아극단을 만나는 일도 놀랍지 않지만, 유럽 무대에서 무명에 가까운 일본작가의 작품이 거의 한 달 간 투어공연을 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동양의 낯선 전통적 이미지나 자국의 희곡을 재해석한 작품들에 관심을 보였던 유럽이, 이제는 동시대 젊은 작가들에게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마에다 시로는 1977년생으로 1997년 극단 고탄다단을 결성해, 일본에서는 소위 제로 세대, 즉 2000년대에 두각을 나타내며 활발히 활동하기 시작한 젊은 작가에 속한다. <살아있는 자는 없는 건가?(生きてるものはいないのか)>(2008년)로 제52회 기시다 희곡상을, 소설 <여름 물의 인어(夏の水の半魚人)>(2009년)로 제22회 미시마 유키오 상을, NHK드라마 <쇼핑(お買い物)>으로 제46회 갈릭 시상 우수상 등을 수상하며, 장르를 뛰어넘는 작가로 인정받고 있어서일까? 비슷한 세대 어떤 작가들보다도 그의 작품에서는 등장인물들 간의 치밀한 대화가 돋보인다.

이를 테면 <수테루 타비(すてるたび)>, 이 작품의 의미는 '버리는 여행'으로 그는 의도적으로 단어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한자를 쓰지 않고 음(소리)만을 나타내는 히라가나를 작품 제목으로 나열했다. 사실 이러한 표기법은 그의 다른 작품 속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는데, 한자를 함께 쓰는 일본어의 특징을 활용해, 그는 일상에서 우리가 무언가 의도를 가지고 말을 할 때와 무심코 말을 내뱉을 때를 구분하고 있는 것이다. 작품의 제목처럼 <수테루 타비>는 공간도 시간도 인물의 설정도 모호하다. 무대장치라고는 작은 방에 의자 네 개가 전부인 데다가, 등장하는 배우도 네 명 뿐인데 그들에게는 이름조차 없다. 열어서는 안 되는 아버지의 상자, 아빠 몰래 키우던 강아지, 강아지의 죽음, 그리고 긴 기차 여행이 네 사람과 네 의자에 의해 그려진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 그 네 사람이 가지고 다녔던 것이 아버지의 시체가 담긴 관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관을 바다로 멀리 떠나보내려 해도 파도를 타고 계속 되돌아오는 데에서 이야기가 끝이 난다. 줄거리조차 정리할 수 없을 만큼 애매하고 비약이 난무하는 네 사람의 대화들은, 끝에 가서야 이것이 시공을 초월해가며 가족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일종의 치유 과정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을 느끼게 해준다.

그의 다른 작품들, 예를 들어 〈양배추류(キャベツの類)〉, 〈오야스마나사이(おやすまなさい)〉, 〈위대한 생활의 모험(偉大なる生活の冒険)〉, 〈가난뱅이(びんぼう君)〉 등은 모두 하나같이 기발한 소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위와 같은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먼저 〈양배추류〉는 머릿속에 벌레가 기억을 갉아먹고 있다고 하는 여자와 기억을 모두 양배추에 빼앗긴 남자가 등장한다. 두 사람은 부부로, 어딘지 알 수 없는 공간에서 자신들의 아이들을 만나 무의미하거나 희망적인 대화를 나누지만, 결국 두 사람은 영영 만날 수 없는 처지가 되어버리고 만다. 〈오야스마나사이〉는 2인극으로, 제목의 의미는 잠을 자기 전 하는 인사말 '오야스마나사이'를 조금 바꿔 만든, 작가의 신조어다. 작은 방 이불 속에 있는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잠을 자고 싶어하고 또 한 사람은 잠을 안 잤으면 해 끊임없이 떠든다는 내용이다. 또 〈위대한 생활의 모험〉은 대학을 졸업해 백수로 지내며 여자 친구 집에서 게임만 하며 살고 있는 서른 즈음의 남자가, 여자친구, 이웃, 그리고 얼마 전에 죽은 여동생과 나누는 대화로 구성되어 있다. 역시 시공을 초월하며 조금도 변하지 않는 주인공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묘사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열하게 살고 있는 한 사람의 삶을 보여준다. 끝으로 〈가난뱅이〉는 집이 너무 가난해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초등학교 남자아이를 주인공으로 하고 있다. 좁은 방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숙제를 핑계로 집으로 데려온 같은 반 친구가 놀고 웃고 떠들면서 가난과 비극을 마치 판타지처럼 보여주는 작품이다.

어떻게 보면 말장난을 늘어놓는 것 같기도 하지만, 곰곰이 보고 나면 연극의 기본은 역시 대화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든다. 유럽이 그의 연극에서 흥미를 느낀 부분은, 다이렉트한 구석 하나 없으면서 소통하는 일본인의 대화법이 아닐까? 일본의 젊은 작가, 젊은 연출가들이 국내에도 많이 소개되고 있는 가운데, 조곤조곤 세상을 향해 중얼거리고 있는 마에다 시로의 이야기도 언젠가 우리 무대에 서게 되길 기대해본다.

● 연극 '언더스탠더블?' 한 장면 ©극단 고탄단

